

‘백번의 추억’ 신예은 “종희는 쿨한 여성...난 사랑 양보 못 해”

‘탁류’ 선 당찬 상단 후계자 말아...“연기 갈증있던 시기에 선택”

“제가 실제 종희였다면 모르겠지만, 종희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신예은은 (우정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진 못할 것 같아요.”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 종영을 앞두고 최근 만난 배우 신예은은 자신이 연기한 서종희처럼 우정을 위해 사랑을 양보하진 못할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백번의 추억’은 1980년대 버스에서 돈을 걷고 승객들의 승하차를 돕던 두 버스 안내양의 첫사랑과 우정을 다룬 드라마다. 신예은은 버스 안내양이라는 소재,

서종희라는 캐릭터에 큰 매력을 느껴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녀는 “버스안내양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 안내양 다큐멘터리를 보며 캐릭터 연구도 했다”며 “또 대본 속 종희라는 인물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씩씩하고 강한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둘은 동시에 한재필(하남준)이라는 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지만, 이들은 우정을 위해 자기 마음을 숨기고 서로 재필을 양보한다.

신예은은 “종희를 연기한 저로서 7년간 (마음을 숨겨 온) 종희의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종희가 영례를 생각보다 더 아낀다는 것도 느꼈다”며 “재필이로 인해 영례와의 우정이 흐트러진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정의 한 모양일 뿐 영례와 종희의 우정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예은은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영풍한 애교가 화제가 될 정도로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나 극 중에서는 ‘정년아’의 하영서, ‘더 글로리’의 박연진(어린시절 역)



배우 신예은 <엔파오 제공>

에 이어 종희까지 차갑고 도화적인 이미지 역할을 주로 맡았다. 그녀는 “옛날부터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왜 그렇게 보느냐 오해를 많이 들었다. 제 얼굴이 많이 웃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며 “이런 이미지를 연기할 때 많이 표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년아’의 영서 역할은 완벽한 듯 보이지만 내면에 결핍이 많은 성격이란 점에서 종희와 비슷한 결을 갖고 있었다. 신예은은 두 역할의 성격적 차이는 “쿨함”의 정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둘 다 똑같이 결핍이 있지만 영서는 그 결핍에 더 얽매어 살아가는 편”이라며 “종희를 연기하며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받아칠 수 있는, 쿨한 여우가 있는 캐릭터로 표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신예은은 ‘탁류’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당찬 성격의 상단 후계자 최은을 연기했다. 그녀는 “‘탁류’는 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던 시기,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증이 많았을 때 추천된 감독님이 배우의 감정을 잘 끄집어내 준다는 이야기에 끌려 하게 됐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신예은은 ‘백번의 추억’의 김다미 등 동료 배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는 “감정이 안 잡힐 때 김다미 배우의 눈을 한 번 더 보면 감정이 바로 잡혔다”며 “이 배우처럼 저도 연기가 할 조금 더 진심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떠올렸다. 신예은은 차기작으로 어떤 작품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두 가지 바람을 드러냈다. 그녀는 “제가 가진 본연의 사랑스러운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작품 만나고 싶다”며 “또 제가 가진 차갑고 냉랭한 이미지를 잘 활용해 진한 장르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9월 1일 천문역원 (062)673-2427
	하미: 주변의 시선보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때이며, 조금만 판단보다 차분함이 행운을 부른다. 36년생 무리하게 정리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오늘은 상황을 지켜볼 때이다. 48년생 신중함이 오늘의 가장 큰 무기이다. 60년생 현실적인 문제는 명확한 해답으로 풀릴 운이다. 72년생 손실 줄이고 이익을 지키는 현명한 날이다. 84년생 시작은 어렵지만 꾸준함이 승리의 열쇠이다. 96년생 먼저 움직이지 말고 흐름을 기다려라. 08년생 부지런히 움직이면 저녁쯤 성과가 있겠다. 행운의 수: 06 행운의 색: 검은색	
	소미: 지금은 멈추고 재정비할 시기이며, 무리한 추진보다는 협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37년생 집안이나 가족 문제는 화합과 대화로 풀릴 수 있다. 49년생 속도를 늦추고 차분히 움직이면 오히려 기회가 찾아온다. 여유속에 답이 있다. 61년생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면 기운이 떨어진다. 73년생 마음의 불안, 욕심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하루이다. 85년생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평화로운 하루이다. 97년생 의견 충돌엔 조율이 필요하다. 선불리 나서지 말 것. 09년생 태도가 불분명하면 난처해 질 수 있다.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흰색	
	호랑이띠: 설부터 결정은 피하고, 계산된 행동이 필요하다. 38년생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줄이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 50년생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집중하라. 62년생 욕심이 커질수록 더욱 많은 욕심이 일어난다. 74년생 배려와 인내심이 장기적으로 큰 복이 된다. 86년생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것을 지켜라. 98년생 통하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연으로 상승한다. 10년생 혼자 모든 것을 짚어지지 마라, 도움을 청하면 길이 보인다. 행운의 수: 48 행운의 색: 노란색	
	토끼띠: 지금은 계획을 수정하거나 방향을 재조정하기 좋은 시기, 작은 위기는 큰 기회의 전조이다. 39년생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있으나, 마음을 밝게 유지하면 좋은 운으로 전환된다. 51년생 세상에 공파는 없다,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 63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 대응하지 말고 침착 유지하라. 75년생 자존심은 중요하나 고집은 손해본다. 87년생 물살이 빠르니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 99년생 결과로만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 과정속의 진심이 결국 운을 만든다. 11년생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행운의 수: 16 행운의 색: 회색	
	용띠: 감정에 솔직히되, 지나친 표현은 삼가라. 안정된 마음이 행운을 불러들이는 하루이다. 40년생 금전적 거래나 계약을 피하고 조종히 내면을 다스리는 날로 삼아라. 52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나만의 리듬을 지켜가라. 64년생 변화의 시점을 명확히 정하면 순탄한 흐름이다. 76년생 새로운 방향 모색이 행운의 열쇠이다. 88년생 서로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날이다. 00년생 사이를 넓히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12년생 과한 자신감은 화를 부르고 겸손과 평정심이 운의 기류를 바꾼다. 행운의 수: 57 행운의 색: 민트색	
	뱀띠: 감정의 대립은 빨리 피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41년생 자식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며, 마음속 고민을 드러내라. 53년생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흐름을 믿고 따르자. 65년생 말을 아끼면 복이 온다, 오늘은 듣기보다 미소로 응답하라. 77년생 욕심이 많아질수록 잃는 것이 커진다. 89년생 말보다 마음이 앞서서 쉬운 날이다. 01년생 꾸준한 노력과 겸손함이 오늘의 복을 만들어준다. 행운의 수: 01 행운의 색: 초록색	
	말띠: 오늘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42년생 설부터 판단은 금물이다. 54년생 마음이 복잡해지고 머리로 부주한 하루이다. 66년생 공사 구분이 필요한 시점,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적 문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78년생 협력과 상생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으로 타인과 다투기 보단 손잡는 편이 유리하다. 90년생 한번에 여러가지를 잡으려하기보다는 중요한 하나에 집중하라. 02년생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오래 지킬 것을 택하라. 행운의 수: 34 행운의 색: 빨간색	
	양띠: 오늘은 말이 많아질수록 손해볼 수 있는 날이다. 43년생 작은 오후나 불화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라. 55년생 현실적인 판단력과 함께 이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67년생 완벽함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움직여라. 79년생 도움이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라. 고지로 향하는 오르막길이다. 91년생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무겁지만, 그 속에서 기회의 씨앗이 있겠다. 03년생 현실적인 시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 실수 없이 넘어갈 수 있다. 행운의 수: 26 행운의 색: 노란색	
	원숭이띠: 침묵속에서 길이 열린다. 44년생 자기 주장이 강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 56년생 감정 대립 주의, 시기 질투는 흘러보내라. 68년생 너무 많은 생각보다 핵심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행운의 비결이겠다. 80년생 무리한 욕심보다 모두가 납득할 선에서 마무리하자. 92년생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04년생 소소한 성취가 마음의 평안을 준다. 행운의 수: 58 행운의 색: 파란색	
	닭띠: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고, 조종히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로 만들어보자. 45년생 마음이 편해야 행운이 따라온다. 57년생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당신의 통찰력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69년생 당신의 진심이 전해지면 뜻밖의 귀인이 나타난다. 81년생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판단하면 좋은 기운이 흩날릴 수 있으니 속도보다 방향을 기억하라. 93년생 겉모습보다 속이 짝한 진심이 더 중요하다. 05년생 길 길이 멀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행운의 수: 01 행운의 색: 보라색	
	개띠: 조금함은 버리고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라. 46년생 주변의 시기에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58년생 작은 친절 한마디가 훗날 큰 복으로 돌아오니,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라. 70년생 진지한 태도로 임하며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82년생 잠시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할 때가 있다. 94년생 오늘은 나답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다. 06년생 낯선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행운의 수: 59 행운의 색: 흰색	
	돼지띠: 감추기보다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35년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필요하다. 47년생 행운이 왔을 때는 겸손으로 받는 것이 지혜다. 59년생 무리한 경쟁보다 집중이 필요한 날이다. 71년생 진심과 절제가 행운을 부르고, 겸손이 복을 지키는 날이다. 83년생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배가되고, 당신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 찾아온다. 95년생 남을 흉내 내기 보다는 나만의 개성을 찾아야 길하다. 07년생 고집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조언을 듣는다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행운의 수: 12 행운의 색: 노란색	



전국교통신망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정희준 진행자: 노희설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남도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진행자: 장원나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진행자: 윤지현 작가: 정안숙 출음운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거우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달리는 라디오 (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진행자: 최유규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KCTV 광주방송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KCTV 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KCTV의회중계 < 광주광역시의회 / 북구의회 >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와 제305회 광주 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시정질의 _ 10월 20일~22일 / 구정질의 _ 10월 23일~24일 방송 : 10월 20일(월)~10월 24일(금) 10:00~12:00, 14:00~16:00
프로그램 안내	네트워크발굴 서울광광 < 신형 소문리 카페와 울산박물관 편 > 4곳의 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현지역 진정한 지역 맛집 프로그램. 이번 화는 산속의 숨마채럼 카페와 울산의 과거 역사를 간직한 울산박물관을 찾아간다. 방송 : 10월 21일(화)~10월 24일(금) 20:20~20:50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주요 소식들,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SO네트워크 < 오 정해보고, 강원 춘천 편 > 방송인 오정해와 떠나는 지역 케이블방송사가 공동제작하는 '현' 현지 탐방 기행프로그램. 이번에는 호반의 도시 춘천의 맛과 매력을 만난다. 방송 : 10월 22일(수)~10월 24일(금) 13:00~13:50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